

+ 박승우 · KBS TV기술국,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통해 본 방송관련 주요 사업



방통위는 3D 입체방송 상용화에 앞서, 케이블TV를 시작으로 ETRI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 방송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각자 기술 선점과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실험방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1. 개요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방송사는 경영목표와 핵심사업 등을 고려하여 자본예산과 손익예산 편성을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디지털 방송 전환 시범사업과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7,752억원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예산안 7,752억원에 방송관련 특히 방송기술관련하여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소개 하도록 하겠다. 그 이전에 예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방통위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의 중요성으로 인해 방통위에 편성된 예산은 방송사와 통신사업자, 산업계,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정책을 수립하는 방통위에서 어느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지 등의 의지가 바로 그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통위의 예산(안)은 우리 현업인들도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설명할 방통위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바이다.

2. 방통위의 예산편성

2-1. 예산편성의 특징

방통위는 2010년도에 디지털 방송 전환 시범사업과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그리고 광대역통합 망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환경조성, 안방에서 3차원 입체영상을 실감할 3DTV 실험 방송사업 등에 투자한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사업 등에 쓰일 예산과 기금을 합쳐 모두 7,752억의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7,142억원보다 610억원(8.5%) 늘어난 수치다.

[방통위 예산 총괄표(2009년, 2010년)]

(단위:억원)				
구분	'09 예산(A)	'10 예산(B)	증감	비율(%)
【합계】	7,142	7,752	610	8.5
일반회계	2,912	3,224	312	10.7
방송발전기금	1,726	1,984	258	14.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	65	54	490.9
정보통신진흥기금	2,493	2,479	△14	△0.6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12억원(10.7%) 늘어난 3,224억원, 방송발전기금은 258억원 증가한 1,9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혁신회계¹⁾ 65억원과 지식경제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2,479억원을 투입, 방송통신 분야 연구개발과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방송 전환 촉진, 콘텐츠산업 활성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국민 생활 향상과 신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전년대비 258억(14.9%)이 늘어난 1,984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에 신설되었음.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전파연구소가 2012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2010년에 토지매입비 등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음.

2-2. 방송발전기금

방송법 제36조에 의거 방통위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관련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기금의 용도 중 방송기술 관련해서는 방송기술연구 및 개발 등이 있는데, 지난해 1,726억원 중 실제 이 용도로 얼마의 금액이 사용되는지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 기금의 징수율은 방송환경변화에 맞게 방통위에서 징수율을 고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1.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를 고시 시점까지 유예한다.
2. (주)문화방송과 (주)SBS :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단, (주)문화방송과 (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를 고시 시점까지 유예한다.
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 적용대상사업자
부산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마산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청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강릉문화방송(주), 진주문화방송(주), 목포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여수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삼척문화방송(주),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OBS
4. 라디오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 적용대상사업자
(주)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주)라디오인천, YTN라디오

신규 영어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1. 적용 대상 : 수도권 및 광주권 영어FM
2. 부과 요율 :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3. 적용 시점 : 본 방송 개시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이하인 사업자 : 방송관련 매출액의 1%
 -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사업자
: 25,000,000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3%
 - 방송관련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사업자
: 57,500,000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8%
 - 방송관련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사업자
: 147,500,000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 방송관련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377,500,000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8%

3. 방송관련 주요사업 지원내용

3-1.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90억원 배정)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에 따른 파급 효과와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에는 충북 단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에서 아날로그TV 방송을 완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면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9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가.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한 2012년 전국적인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에 앞서 특정지역에서 아날로그TV 방송을 시범 종료하고 이를 통해 홍보, 인식확산, 수신기 보급률 제고 등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계기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불어 기술테스트, 시청자만족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2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다.

나. 해외사례

미국은 월밍턴(08. 9월, 18만 세대), 하와이(09. 1월, 43만 세대)에서 총 61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영국은 페리사이드(04. 11월, 500세대), 볼튼(05. 7월, 400세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2012년까지 지역별로 순차종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은 스즈시(09. 7월, 6,500 세대)에서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일시 중단, 종료 안내방송만 실시(Soft test)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국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미국	모든 세대	디지털 컨버터(DtoA) 구매쿠폰 2장(80달러)
영국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디지털 셋톱박스, 무료 위성방송 셋톱박스 등
일본	수신료 면제 세대	디지털 컨버터(DtoA) 등

다. 추진내용

2010년에는 단양군, 울진군, 강진군 등 소규모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에는 제주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2010년 말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안내 자막방송(아날로그TV 방송 가상종료)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지역 전체 세대수 및 유료방송 세대수]

시범지역	단양군	울진군	강진군	제주도
전체 세대수	14,524	23,109	18,369	216,005
지형특성	분지	해안	평야	섬
유료방송 세대 수	11,730	16,837	14,102	172,221
기초생활수급자 수	1,284	2,872	1,781	11,780

이 3개 지역의 구체적인 종료일은 지자체 및 관련 방송사 등과 협의하여 정한 날에 지역별로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아날로그TV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디지털TV 방송 시청정보 등 디지털 전환 안내고지방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시청자가 기존의 아날로그TV를 이용하여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TV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세대에게 디지털 컨버터(DtoA)/안테나 등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저소득층) 지원한다.

3-2. 수신환경 개선사업 실시(21억원)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는 자연적·인위적 난시청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 전파환경 조사 및 수신설비 노후·훼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상파 방송사 등은 방송보조국 등을 통한 자연적 난시청 해소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이용한 시범사업(10년) 및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절차 완화(허가→신고, 11년)를 추진할 계획이다.

TV 방송수신설비 체계적 개선 관련하여 수신설비 개선책임자인 거주자, 주택관리자 등에게 개선필요성 및 방법 등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개선을 유도(09~13년)하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 방송사 등이 협력하여 노후·훼손 수신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3. 디지털 전환 홍보강화(11억원)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09년 상반기 기준으로 48.1%이고, 디지털TV 수신기기의 보급률은 47.9%로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디지털TV를 구입하는 등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할 준비를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는데 11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3-4. 라디오 디지털 전환관련 필드테스트(17억원)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이어 라디오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그동안 주춤했던 디지털 라디오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필드테스트를 통해 다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라디오는 디지털TV 방송처럼 잡음이 없고 깨끗한데다 아날로그보다 적은 대역의 주파수만으로도 충분히 방송을 보낼 수 있어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 17여억원을 투입해 3가지 디지털 라디오 규격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진행한다.

미국식 디지털 라디오 방송인 HD 라디오와 유럽식 DAB를 한 단계 발전시킨 DAB+ DRM+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방식과 현재 서비스가 진행 중인 DAB 방식을 포함해 향후 디지털 라디오 규격을 결정할 전망이다.

3-5. 융자지원(220억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사(지상파, SO, PP, 위성방송)에 대한 융자지원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50억이 늘어난 2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6. 차세대(3DTV) 방송관련 투자(20억원)

차세대 방송관련 일본은 07. 12월 세계 최초로 3차원(3D) 입체방송이 위성방송(BS11)으로 상용화하였고, 영국은 08년에 BskyB가 3D 위성시범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방송서비스 선진국은 차세대방송(3DTV 등 실감방송)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실험방송,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0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Post-HDTV 방송으로 부각 중인 3DTV 실험방송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방송시장 선점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지원사업 세부내역]

기능별	'09 운용(A)	'10 운용(안)(B)	증감
□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지원	-	2,000	2,000
· 3DTV 송신·수신 시스템 구축	-	700	700
· 3D 입체영상 획득·저장·편집 시스템 구축	-	800	800
· 실험방송용 입체 영상 제작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500	500

방통위는 3D 입체방송 상용화에 앞서, 케이블TV를 시작으로 ETRI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방송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각자 기술 선점과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실험방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차세대 실험방송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3D 규격 및 표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방송장비, 콘텐츠, S/W, 디스플레이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nsight Media에 의하면 세계 3DTV 판매 시장은 2010년 680만대, 2011년 1,750만대, 2012년 3,12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에서 3DTV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시설 투자와 인력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시청자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파수와 네트워크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DTV 기술의 전후방 연관 산업]

3-7. 디지털 방송콘텐츠 센터건립

방통위는 (문화부와 공동) 2010년부터 3년간 1,992억원을 들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 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방송통신환경에서 영세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시청자 후생 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방송콘텐츠 센터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위치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총사업비는 1992억원, 이용대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양방향콘텐츠제작사이다. 시설로는 스튜디오(대형 1개, 중형 1개, 소형 4개), 중계차 1대, 편집실 16개이다. 이와 더불어 2010년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총 25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다큐멘터리, 융합형 콘텐츠 등 미래 성장 유망 콘텐츠와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8. 방송통신망 고도화 투자(50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망 고도화의 일환으로 광대역 통합망(BcN)보다 최대 10배 빠른 Giga급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10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09년도 36억원과 비교하여 약 39%(14억)가 증액된 사업으로 3DTV와 같은 실감형·대용량의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본 사업을 통해 Giga급 선도 시험망을 구축하고 실감형 입체TV, UDTV, 고화질 홈 CCTV 서비스 및 HDTV 기반의 영상전화 등의 고품질·대용량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지난 9월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예산안을 근거로 통신망보다는 방송기술에 관련된 사항만을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대로 2010년에는 디지털 라디오, 3D입체방송, 차세대 DMB 도입을 위한 필드테스트가 진행되며, 다운로드형 수신제한 시스템, IPTV2.0 등과 관련된 표준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DTV 실험방송과 관련하여 스카이라이프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역이 넓은 위성방송 사업자가 3D입체방송에 앞장섰다”며 넓은 대역을 장점으로 올 1월부터 “가정을 대상으로 한 3D입체방송의 실험방송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라며 “학원가 등에서 영어 교육에 3D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거쳐 콘텐츠 개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D입체방송 상용화에 앞서, 케이블TV를 시작으로 ETRI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방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와 별도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각자 기술 선점과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실험방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상파방송사에서도 3DTV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주파수 상의 제약이 많이 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위성파와 케이블TV, IPTV 등 경쟁매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3D입체영상 제작기술 확보, 3D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압축 및 전송기술, 그리고 주파수 확보 등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